

문화산책

이당금

예술이 뽁그라웃 대표



‘작은 실수가 큰 산불을 났다... 전국 건조한 날씨로 ...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안전 안내 문자가 실새 없이 올랐다.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파면 요구가 거세지는 3월 20일경 산불이 도깨비불처럼 일었다. 개인의 방식으로 발화된 작은 불씨는 의성에서 시작하여 바람을 타고 산맥을 넘어 안동, 청송, 영양, 영덕 해안가를 태우고 그러다 느닷없이 지리산까지 삼시닥에 번지는 우리나라 최악의 대형 산불이 되고 말았다.

건조한 날씨로 인해 큰불 속에 도사리고 있던 잔불이 꺼지지 않고 어느 순간 되살아나 다시 번지고 전국 동시다발 산불로까지 번지면서 인명피해, 재산피해, 산림피해 등은 그야말로 역대급이었고 잔불 소멸까지는 총력을 다해 10여일 이상이 소요됐다.

뉴스화면에서도 느껴질 정도로 뜨거운 불길에 도깨비춤을 추듯 이 마을 저 마을로 불티를 옮기는 모습이 기이하게 여겨졌다. 그 순간을 경험한 수많은 이재민들의 두려움과 공포와 평생을 가꾼 삶의 터전을 소각당해버린 마음의 상흔은 쉬이 치유되지 않을 것이다. 눈에 보이는

기왕의 짓을 넘어섰으니

상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흔이 더 크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가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등한시 하는 경우가 많다. 나 또한 그렇다.

눈에 보이는 것에 우선 집착한다. 보이지 않는 마음은 한견으로 밀어내거나 구석으로 몰아넣기 일쑤다. 그러다 보니 먹어도 채워도 허기진 아귀처럼 무언가를 끊임없이 욕망한다. 과유불급이라 하지 않던가!

요즘 우리네 일상현실이 그러한 듯하다.

대다수 국민들은 삶의 현장에서 죽을통 살통 곤욕을 치르는 반면에 위정자들은 도깨비불처럼 난리 부르스다. 잠시 모양을 바꾸고 모습을 감추었다가 불현듯 나타나 우리를 깜빡 속게 한다. 언젠가 드라마에서 입술 옆에 점 하나 찍고 인물이 완전 바뀐 것처럼 연기를 하면서 시청자들에게 눈속임을 했을 때 시청자는 알고 있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마니까 그 주인공을 꼭 써야 하는 이유가 있나보다 하면서 모든 척 눈물을 흘렸다.

120여일간 법정정치드라마 20부작 대하드라마 일일 연속극을 보는 것처럼 하루하루 스펙터클 SF 공포 액션 코미디가 난무하지만 알 사람은 다 안다. 무엇이 불의하고 어떤 것이 정의로운 행동인지! 행동하는 양심으로 자기간의 목소리를 담은 깃발을 만들어 자신의 삶을 잠시 뒤로 밀어내고 우리 모두 함께 잘 살기 위해서 거리로 광장으로 뛰쳐나왔다. 사랑하는 만큼 합성과 외침은 뜨겁고 처절했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늘 국민이 지켜낸다. 불광불급, 미친 듯이 제 몫을 더 하는 국민, 그 외침은 펄떡이는

깃발에 쓰여진 잔잔한 문장으로 파장을 일으켜낸다. ‘사과해요 나한테’ 마음이 아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는 사과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후안무치가 되어가는 것 같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지 않았던가! 위정자들의 후안무치는 태도는 사회적 정서로 스며들어 혼란을 야기시키는 잔불과도 같다.

‘군인들이 압도적으로 강하다는 걸 모르지 않았습시다. 다만 이상한 건, 그들의 힘만큼이나 강렬한 무엇인가가 나를 압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양심, 그래요 양심,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그겁니다’ (한강 소설 ‘소년이 온다’ 중에서)

계엄령 선포로부터 파면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들은 밤낮으로 도깨비불춤을 추는 위정자들을 향해 자각정성으로 촛불을 밝혔고 두 손을 모았으며 부끄러움을 알게 하려 했다.

한 줌의 진실이라도 타오르게 하려 밤마다 심장을 불살랐다. 기왕의 짓을 넘어서려는 순정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오는 우리는 또 다시 우리가 가꾼 삶의 터전에서 일상을 살아내고 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나는 무엇이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위해서 살 것이며, 당당하게 살다가 당당하게 죽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을 새기며 기왕의 짓을 넘어 서게 하였으니 여기저기 비상직적인 카르텔은 제발 좀 무너뜨리자!

기고

박정현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해답은 체육에 있다. 체육은 단순한 재할 수단을 넘어 사회통합의 핵심 통로이며, 현대 사회에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운동을 위해 시간을 내지 않으면 병원에 가기 위해 시간을 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특히 장애인의 건강 상태는 더욱 취약한 실정이다. 국립재활원에 따르면,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비장애인보다 10% 이상 높고, 이로 인한 사망률도 최대 7.8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2024년 장애인생활체육운영성과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를 바탕으로 2025년에는 생활체육관련 예산 5억7000만원을 지원해, 더욱 활발한 장애인체육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장애인의 건강한 삶, 체육을 통한 사회통합의 길

다. 특히, 올해 생활체육공모사업은 212개소를 개설해 더 많은 전남의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2025년부터는 기존의 공공스포츠클럽에서 한 단계 발전한 정부 주도의 지정스포츠클럽 특화프로그램이 시범 운영된다. 우리 전남장애인체육회는 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공모해, 2026년부터 정규 시행되는 특화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기가맹단체의 운영 및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행정운영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장애인체육의 근간이 되는 각 종목별 단체들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또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2016년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와 협력해 장애인 체육선수들의 취업을 지원해 왔다. 2025년 2월 기준으로 도내 약 14개 기업에서 27개 종목, 215여 명의 장애인 선수들이 취업한 상태다. 도내 장애인 선수들에게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할

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동시에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는 단순한 배려가 아닌,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우리는 22개 시·군에 장애인체력인증센터를 거점형으로 확대 설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지역 장애인체육의 발전과 장애인체육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 지원 등 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힘을 것이다.

장애인체육은 단순한 신체활동의 차원을 넘어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전남의 장애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끊임없는 노력과 혁신을 이어갈 것이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건강하고 행복한 전남도를 위해,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

독자투고

더 이상 약속이 아닌 양귀비

양귀비는 모르핀, 코데인 등의 성분과 납, 단백질 색소 등이 들어있어 중추신경 계통에 작용, 진통과 진정, 지사 효과를 낸다.

때문에 과거 의약품이 없었을 땐 복통, 기관지염, 불면 등 상비약으로 복용했으며 여전히 허리나 다리가 안 좋은 어르신들은 양귀비를 재배하고 있다.

그러나 양귀비는 중독성이 매우 강한 물질로, 인체에 매우 유해하다. 양귀비는 개양귀비와 마약양귀비 분류가 가능한데, 개양귀비는 주로 진한 주황색이나 흰색, 옅은 분홍색 등 색상이 다양한 반면 마약양귀비는 검은 반점이 있는 붉은색이 주류를 이룬다고 한다.

관상용 양귀비도 있는데 이것은 줄기에 규칙적인 털이 있으며, 씨방이 세모꼴로 이루어져 있고, 전체적인 크기가 작다.

어떠한 이유로든 개양귀비가 아닌 마약양귀비를 재배할 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를 위반하게 돼 동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양귀비의 밀경작뿐만 아니라 밀매 및 사용행위까지 예외 없이 모두 엄중하고 단호하게 처벌 대상이 된다.

양귀비 불법 재배가 근절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보다 법을 어기고 있는 것에 대한 낮은 인식 때문이다.

개양귀비와 마약양귀비에 대한 구분법을 잘 숙지하고, 마약양귀비와 개양귀비를 혼동해 처벌받는 황당한 사례가 없길 바란다.

김광중 해남 육천마을출소 경위

OPINION

2025년 4월 11일 금요일

사설

위기 빠진 여수산단 대책마련 서둘러라

국내 최대 규모의 여수국가산업단지(이하 여수산단) 내 석유화학산업이 불황이 지속되면서 존립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그동안 전남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시장수요 감소와 중국발 과잉 공급으로 그로기 상태에 빠진 것이다. 여수시 등에 따르면 여수산단에 있는 석유화학 업체는 현재 전반적으로 생산액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추세다.

금용감독원 전자공시에서 롯데케미칼의 경우 지난해만 해도 9000억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보이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157%나 늘었다고 한다. LG화학 역시 석유화학 부문은 2년째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 4분기에만 1060억원의 적자를 냈으며 한화솔루션도 케미칼 부문 역시 지난해 1213억원의 손실을 보는 등 적자로 돌아섰다.

이는 글로벌 석유화학제품이 과잉 공급되고 있고 최대 수출국인 중국이 자급률을 높이면서 수출이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것도 한 몫하고 있다. 석유화학 업체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NCC가동중단 반박, 한계사업 매각 검토 등 자구노력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중국의 에틸렌 생산 강화, 중동·미국의 신기술 개발 등으로 채산성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석유화학 업체의 위기가 여수지역을 비롯한 전남 동부권의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중소 협력업체의 운영 부담과 지역 상권의 침체 가중으로 인한 폐업수 증가, 법인 지방소속세 감소 등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여수산단 법인 지방소속세의 경우 2024년 징수액이 2020~2023년 평균 징수액 대비 66%이상 감소한데다 소상공인의 폐업 수도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1만명 수준이던 플랜트 건설 노동자 수는 올해 2000여명으로,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여수산단 석유화학 살리기에 적극 나섰다. 전남도의회와 고용노동청, 여수시와 산업계, 노동계, 지원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기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위기극복 방안 마련에 나선데 이어 이달 중에 정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여수산단 석유화학산업을 살릴 수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

장흥군 차별화된 인구정책 결실 맺었다

장흥군은 남해안 끝자리에 자리한 위치 탓인지 지역 주요도시인 광주·목포·순천과는 거리가 멀고 정착하는 철도도 없는,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다.

1960년대 14만여명을 넘던 인구는 3만4000여명으로 폭락 떨어졌고 이마저도 노인인구가 45%를 차지하고 있어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하다.

이런 장흥군이 최근 6년 만에 인구가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한다. 지난 3월말 현재 인구가 3만431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명이 늘어난 것이다.

이는 그리 놀랄만한 수치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매달 출생아 수는 10명 안팎인데 사망자는 60여명에 달해 6년 3개월간 인구가 계속 감소세에 있다가 증가세로 전환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나름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는 민선 8기인 지난 2022년 인구정책과를 신설하고 다양한 인구시책을 추진해 온 장흥군의 공이 크다.

전입, 결혼, 임신·출산, 영유아, 청소년, 청년 지원, 일자리까지, 생애 주기에 맞춘 ‘맞춤형’ 지원 정책을 적극 펼친 것이다.

장흥군은 먼저 타 지역민이 전입해 올 경우 1인당 10만원의 전입장려금과 전입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희망주거비사업으로 전세이자 또는 월세에 대해 5년간 최대 1320만원을 지원했다.

귀농어업인에게는 주택수리비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창업자금 3억원 이내 저리 융자, 주택구입 및 신축 7500만원 이내 저리융자 등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지난 2017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결혼장려금도 신혼부부는 최대 800만원의 지원 혜택을 받게 했으며 자녀수에 따라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올해부터는 전국 최초로 1~18세까지의 유아·아동·청소년에게 20만원의 중고생 학습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고 폐교위기에 처한 지역에 농산어촌유학마을 10세대를 조성해 타 지역에서 34명을 이주하게 하기도 했다. 획일적인 보조금 지원 정책에서 탈피해 독특하고 차별화된 장흥만의 인구정책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취재수첩

제주항공 참사 원인, 투명하게 공개되길

임영진

사회교육부 차장



지난해 12월29일 전남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이 지났다.

해당 참사는 승무원 2명을 제외한 179명의 희생자 대부분이 광주·전남에 거주하는 시민들로 확인돼 지역에 큰 슬픔과 충격을 안겼다.

다행히 참사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선 관계 기관의 노력으로 희생자 시신 인도 및 장례 지원이 원활하게 마무리됐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은 해소되지 않았다.

배상 절차는 진척이 없는 데다 아직까지 사고 책임자 한 명도 입건하지 못하고 내사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점은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사고 당시 관제탑과 조종사 간 교신 문구 일부만 발췌, 관제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취지의

일부 언론 보도로 피해자들은 또 다른 아픔을 겪기도 했다.

여기에 각종 의혹까지 증폭되자 피해자 지원을 맡은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 참사 법률지원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정부를 상대로 교신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시작으로, 민사상 증거보전을 신청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들은 유족이 요청하면 형사고소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지원단은 정부가 사고 전 4분 7초간의 교신기록 일부만을 일부 유족에게 제한적으로 제공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제공 하루 전 공지로 유족들의 참여권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고 ‘누설 및 누명 금지 서약’을 요구해 사실상 공문화를 가로막은 사실도 폭로했다.

이러한 사회적인 갈등이 생긴 이유는 피해자와 유족들의 아픔과 상처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사단이 사고기 부품 분해와 블랙박스 분석이 끝나는 6월 초 이후에 최종보고서를 통해 명확한 사고 원인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투명하게 모든 사실이 공개되길 기대한다.

회장·발행인·편집인 전용준	논설실장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10 경 제 부 370-7020 사회교육부 370-7030 지역사회부 370-7040 문화체육부 370-7234 민 집 부 370-7082 사 진 부 370-7050	논 설 실 370-7060 뉴미디어본부 370-7222 임 령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978-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광간)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